

# 중고차 One-Stop 클러스터 구축

### 군산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군산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의 민간 사업시행자인 군산자동차무역(주)과 차질없는 시설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군산자동차무역(주)과 새만금 산업단지내 계획 중인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및 운영 시 ▲실시협약과 사업추진 일정 준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3일 공개모집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지난 1일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상호 신뢰 성실의 원칙에 따른 업무협약이다. 오는 11월초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오는 2023년 중 개장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간사업자 확정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시설조성 뿐 아니라 운영 활성화 부분에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내 수출·내수 중고차 시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군산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군산 지역경제

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군산지역의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정됐으며 규모는 대지 19만 7,824㎡에 수출·매매업체 200개 업체, 건설기계 10개 업체가 입주해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행정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통하여 중고차 시장의 One-Stop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대학교의 지역기반 융합소재 인력양성사업단에서는 올해 봄부터 참여학과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졸업생에 대해, 취업전문 컨설팅업체인 드림팩토리(대표 이숙영)와 공동으로 개인 취업컨설팅을 진행하여 취업 성공사례를 내고 있다.

## ‘취업컨설팅’으로 관문 뚫어

### 군산대, 인력양성사업단·드림팩토리 공동 진행

군산대학교의 지역기반 융합소재 인력양성사업단(화학공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참여)에서는 올해 봄부터 참여학과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졸업생에 대해, 취업전문 컨설팅업체인 드림팩토리(대표 이숙영)와 공동으로 개인 취업컨설팅을 진행하여 취업 성공사례를 내고 있다.

사업단은 개인 컨설팅을 통해 전공 실력은 우수하지만 입사지원 경력이 부족하여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졸업생들에게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채워주고 고도화시켜 취업을 지원했다.

사업단과 드림팩토리는 졸업생 역량에 맞는 기업 목록을 매칭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모의면접을 통해 한 걸음 더 취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개인 취업컨설팅을 통해 전북

도시가스에 취업한 합형석 졸업생(화학공학과 졸업)은 "사업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업 컨설팅을 통해 이력서와 자소서를 수정했고, 모의면접 연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심종표 사업단장(화학공학과 교수)은 "사업단은 재학 중에는 다양한 전공 교육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고,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원하여 참여 학생들이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대 지역기반 융합소재 인력양성사업단은 전라북도와 대학교 및 도내 기업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학산학관 커리큘리사업단으로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청년취업 및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배달의 명수, 진흥공단 지원 5000만원 공모사업 선정

### 이벤트 통해 12월까지 할인혜택 계속

전국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2021년 소상공인 020 지원사업'에 선정돼 이벤트 사업비 등 총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020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비대면시대에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전국 3개의 공공배달앱이 선정됐다.

배달의명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매일 소비자 할인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배·명'을 찾는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배명과 함께 놀자~배명의 마블' 이벤트를 통해 주문할수록 커지는 혜택을 게임으로 제공하고, 12월에는 한 단계 성장을 위해 설문조사 이벤트를 통해 할인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의 할인쿠폰과 배달료를 일부지원해 소비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늘려 소비자는 할인혜택을 높이고 가맹점은 매출을 높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높이는 가맹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인 배달의명수는 배달앱 입점을 희망하는

마트를 20일부터 모집한다. 생필품 구입을 위한 온라인시장이 커가는 만큼 배달의명수가 동네마트의 온라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동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트뿐만 아니라 배달앱 진출을 희망하는 업종은 전화 문의(063-454-2692)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배달의명수 앱 등에 공지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배달의명수가 공공배달앱 플랫폼으로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 동네플랫폼으로 생활 속 온라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전북 장애인체전서 군산시 선수단 선정

2021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4일 폐막한 가운데 군산시 선수단이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익산(에서 개최됐으며 도내 13개(남원미출전) 시·군 선수 및 임원 1,500여명이 참가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개·폐회식을 생략했으며 종합순위를 매기는 대신 종목별 순위와 시상만 실시했다.

군산은 총 15개 종목 중 12개 종목 13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트랙과 탁구, 볼링경기에서 1·2·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테니스 단식경기에서 1위, 게이트볼 단체전·축구·배드민턴 경기에서는 2위, 육상 필드경기에서 1·3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군산=고병만 기자

### 익산시,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특별 방역 돌입

익산시는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2022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D),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9일부터 상시 운영하던 거점소독 초소 1개소에 신규로 축산 관련 차량 이동이 많은 용흥면, 왕궁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거점소독 초소 3개소를 추가 운영한다.

양돈 농가 밀집지역 2곳과 철새 도래지 1곳에 통제초소 3개소를 추가 설치해 방문 차량의 소독여부를 확인해 전염병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민경강 철새도래지에 대해 드론 소독, 축산관계자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활동을 전개한다.

해빙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구제역 항체 양성을 70% 미만 농가 특별관리 등 발생 예방에 민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등록금 걱정 없는 군산대학교( '21년 학기당 평균 등록금 약90만원)  
우수한 장학금 지원( '20년 재학생 7,313명 중 7,110명(97.2%)이 장학금 수혜)  
'20년 학생1인당 교육비 16,496,280원(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39위)  
·최근3년 평균 교육비 환율을 485.9%(대학 평균 248.3%의 약 2배)  
공유전공을 통한 융합교육 혁신모델 구축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 군산시, 부시장 주재 2022년 본예산 편성 보고회

군산시는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2022년 도 본예산 편성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철호 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보고회는 36개 주요 사업부서 부서장을 대상으로 2022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등을 점검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과감히 걸러내고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황 부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

간을 감안해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기존사업은 Zero-Bas에서 사업추진 성과 및 주민수혜도 등을 정확히 분석해 연례반복적, 습관적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황철호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여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다 해달라"고 말하며, 책임감있는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장애태권도인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인식개선 협력

### 익산시, 대한·전북 장애인태권도협회와 협약

익산시가 대한·전라북도장애인태권도협회와 함께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태권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의 후 MOU를 체결했다.

19일 이날 회의에는 정현을 익산시 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해서 오태웅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장순식 전라북도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박재우 전라북도장애인태권도협회부회장 전라북도부회장장왕경배 익산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익산시청 관계자 및 장애인체육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태권도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에 대해 상호협력 ▲장애인태권도 국제대회 유치 위한 전문인력 상호 교류·협력 ▲기타 사업의 인적 및 자원, 물적 네트워크 상호 지원 등에 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순식 전라북도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장애인태권도선수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한 익산시 및 익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태웅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익산시가 대한·전라북도장애인태권도협회와 함께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태권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의 후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태권도 종목의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및 영재발굴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되며 장애인태권도인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 태권도와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축적된 역량과 지혜를 공유하여 태권도 중추국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이번 업무협

약이 협약 자체의 상징성을 넘어 익산시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